

월링스, 100MW 규모 새만금 육상 태양광 2 구역 사업 공급계약

▶ 한화시스템에 SL-GH 시리즈 DC 1,500V 용 태양광 인버터 납품

▶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수주 탄력 기대

<2021-07-15> 태양광에너지 리딩기업 월링스(313760, 대표이사 안강순)가 새만금 육상 태양광 2 구역 사업의 태양광 인버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월링스는 한화시스템에 100MW 규모 인버터를 올해 말까지 납품할 예정이다. 납품될 모델은 SL-GH 시리즈 DC 1500V 용 인버터로 주요 부품이 모듈화 되어 있어 유지보수가 용이한 점을 업계는 강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월링스는 앞서 새만금 육상 태양광 1 구역, 3 구역 수주 성공에 이어 이번 2 구역 수주까지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 전 구역에 300MW 규모 태양광 인버터를 공급하게 됐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이 300MW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육상 태양광 사업 전체에 태양광 인버터를 공급하는 셈이다.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 전체의 공급계약으로 월링스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입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1GW 규모의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은 육상 태양광 사업 300MW 규모의 7 배에 달한다.

월링스 안강순 대표는 “이번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 수주를 통해 대용량 태양광 인버터 기술을 높이 평가받을 수 있었다.”며 “인정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입찰에 총력을 다할 것” 이라고 전했다.

■ 자료문의 : 월링스 정정환 과장 031) 326-3078
 IR 큐더스 최윤영 선임 02) 6011-2000(#103)